**<7장 : 발표 기술>**

컴퓨터 SW 15050045 이재우

프로젝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측면들 중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프로젝트 결과물을

발표하는 것이다. 결과물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완벽한 연구를 했다할지라도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 결과물 발표는 보고서나 논문과 같은 서면 형식으로 행해질 수 있지만, 구두

형식으로도 많이 이루어진다.

구두 발표를 통해 프로젝트의 결과물 뿐만 아니라 작업에 대한 이해도와 결과물을 보여주는

능력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구두 발표로 청중들은 프로젝트의

10% 정도만을 보게 된다. 나머지 90%의 노력은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지 시간 내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10%에 프로젝트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각적 보조 자료

활용, 발표 내용, 전달력, 질문에 대한 대처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구두 발표의 첫 단계는 확실한 준비이다. 또한 준비의 첫 단계는 발표에 참석할 청중들과

주어진 시간을 고려해 발표의 묙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발표의 목표란 쉽게 말해 발표할 때

집중적으로 다룰 부분과 발표를 통해 성취하고 싶은 것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청중들과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전에 참석하게 될 청중들에 대해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프로젝트의 결과에 집중할 것인지

혹은 프로젝트 과정 자체에 집중을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발표가 조언과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인지 혹은 단순히 배움과 평가를 위함인지까지도 결정해야 한다. 목표에 따른 기타

작업까지 완료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시각적 보조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들은 것의

10%만을 기억하고 본 것의 50%를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각적 자료는 발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각적 자료로는 프레젠테이션 내의 도표나 그림, 부가적 참고 자료 등이

있을 수 있고 또 슬라이드, 보드, 컴퓨터 기반의 프레젠테이션 패키지, 빔 프로젝트 등과 같은

여러 물리적인 물체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자료, 장비를 포함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할 수 없거나 조작에 서툴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준비한 시각적 자료나 장비의 조작에 무조건적으로 익숙해져 있어야 하고 사전 리허설이

필히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의 목표와 시각적 자료를 선정했다면 가장 메인이 되는 발표 내용을 정해야 한다. 모든

발표는 시작, 중간, 끝이라는 구성을 갖춰야 한다. 시작부에서는 발표 내용에 대한 대략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소개 슬라이드를 따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고 이러한 구성 설정이 주부인

중간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기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한다. 중간부에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구성보다는 세 가지 정도의 복잡하지 않은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 끝부분에서는

요약을 하며 마무리지어야 하는데, 절대 갑작스럽게 마무리를 지어서는 안된다.

청중과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각 자료들과 함께 시작, 중간, 끝이라는 깔끔한 구성을 통해

발표를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전달은 발표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청중에 등을 돌린

채로 연설하고 주제에서 벗어나는 말을 한다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제스처를 한다는 등 여러

요인들이 전달력을 흐릴 수 있다. 발표 중에는 발표자 교대, 또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중단이

없어야 하고 청중들이 오로지 연설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발표자가

주제를 벗어나는 말을 하거나 연설 내용을 잊어버리는 등의 개인적인 실수는 조그마한 메모를

적어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리허설을

진행해봄으로써 실전에서의 가장 적합한 방식을 택하고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발표를 만족스럽게 마쳤다 해도 발표가 끝난 것이 아니다. 발표 이후 질의를 받는 시간까지도

발표의 연장선으로 발표의 일부인 것이다. 먼저 발표 전에 청중들이 질문할 것 같은 예상 질문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질문을 비롯해 기술적인 질문들까지 부문별로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또한 애매한 답변이나 너무 짧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긴 답변은 피해야

한다. 답변은 요점만을 포함해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과는 다른 의견의

청중들과의 대립은 피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대안의 해석을 생각해둘 필요가 있다. 또한

비난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고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질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

필요시에는 사회자의 개입과 중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어찌됐든 발표를 할 때든

질의를 받을 때든 항상 열정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러한 모습에 청중들이 매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발표할 때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시연해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시연 또한 구두 발표 준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준비해야

한다. 시연 목적을 먼저 결정하고 그런 뒤에 시연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리허설해야 한다.

시연을 통해 청중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그를 통해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은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목적에 맞게 시연 방식도 시작, 중간, 끝의 세 단계로 구성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시연에 있어서는 시연 방법이 중요하다. 누구의 개입도 없이 미리 정해놓은 순서대로

시연을 진행하는 solo running, 자체 개발한 데모를 통해 실행되는 rolling 데몬, 청중의 요청에

따라 시연을 진행하는 청중 참여, 청중들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실행해보는 청중 실행 등의 방법

중에서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선정할 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연의 준비 및 계획 과정에서 항상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시간, 청중,

그리고 초점이다. 사용 가능한 시간에 따라 시연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포함시키거나

필요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청중들이 학생인지 현직의 전문가들인지에

따라서도 시연 환경이 크게 바뀔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청중들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청중

그룹의 사이즈 또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모든 소프트웨어가 갖추고 있는 기본 기능을

제외시키고 해당 소프트웨어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기능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시연 목적에 따라 초점을 맞출 부분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시연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전 리허설이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었지만

막상 실전에서는 어떤 비상 상황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 특히 소프트웨어 시연에 있어서는

다양한 기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장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설정이 사전에 이루어져

실전에선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발표장의 환경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발표장의 환경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환경이 청중의 편의를 위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시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중단을 피하기 위해선 해당 소프트웨어의

결함이나 오류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시연 시 질문을 받았을 때 적절한

설명을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보임으로써 청중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알야할 부분이 바로 Viva voce 시험이다. viva 시험은 쉽게 말해 면접관에 의해

시행되는 구두 면접이다. 이는 프로젝트 작업이 본인의 것이고 다른 사람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시험이다. 해당 프로젝트와 주제 영역에 대한 개인의

이해도를 시험함으로써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더 확고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프로젝트를 정당화하면서 모든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사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장 먼저 사전에 보고서를 철저하게 읽어 잘 새겨둬야 한다. 특히 에러나 누락된 부분,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파악하여 시험에서 대처할 방도를 잘 계획해야 한다. 결함이라

할지라도 미리 파악하고 실전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적절하게 설명한다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어려운 부분들에 집중하여 대비하다 보면 일반적인 질문에 있어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질문에도 확실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기본적으로 해당

프로젝트가 속하는 연구 주제 영역에 관한 지식 또한 더 폭 넓게 갖춰야 한다. 그래야 해당

프로젝트가 관련 영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기여에 대해 강조할 수 있고 더 넓은 영역으로

맥락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프로젝트의 개선 방향과 추가적인 개발 가능성

등의 미래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시험 도중에는 단순한 예/아니오 대답이 아닌

확장된 답을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장황하지 않은 간결하고 요점만을 포함한

대답이 되어야 한다. 면접관과의 의견 차이로 인한 대립은 무조건 피해야 하고 시험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필요한 것은 확실하게 질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험이지만 적절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면접관은 단순히 프로젝트에 대한 개인의 이해도를 알아보고 개인이 만들어낸

아이디어와 요점들 중 일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험을 주관하는 것이다. 따라서 viva 시험이

본인이 만들어내고 성취한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더 확고하게

증명해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